

시도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다



취재지원 :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



산재 극복의 비결은 '자신감'

저 역시 이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란 좌절감에 빠져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시도를 해봤고, 그 결과 지금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생때를 떠나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작을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얻는 것은 그저 자기비하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또 자신을 믿고 무엇이든 하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봉평열씨〉

1997년 11월, 승승장구를 거듭해오던 한국경제에 IMF라는 사상초유의 위기가 닥쳤다. 갑작스런 이 폭풍에 유수의 기업들과 건설했던 중소기업들이 한순간 무너져 갔다. 심지어 동네 소규모 점포마저 연이어 닥친 불황에 문을 닫는 곳이 속출했다. 이런 상황 속에 수많은 가정들이 평생을 바친 직장을 등지고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 거리를 헤매야 했다. 봉평열(62)씨도 이들 중 하나였다.

그는 생활고에 대학마저 중퇴를 해야 했던 큰 아들을 보고 망설임 없이 건설현장을 찾았다.

고된 일이었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감내해가며 묵묵히 일한지 3개월여가 됐을 무렵,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신 걸을 수 없는 몸이 됐다.

생활고에 건설현장 찾아

IMF 체제에 접어든지 3개월, 가게엔 거짓말처럼 손님이 뚝 끊겼다. 생활비는 고사하고 임대료를 낼 형편도 되지 않았다. 갈수록 기울어가는 가게를 걱정하던 큰 아들은 대학마저 중퇴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늘 웃음꽃이 피었던 가정이었다. 그런데 이전 웃을 여유조차 사라지고 만 것이다. 가장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무작정 인력사무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대전의 모 아파트 건설현장을 소개받았다. 3개월동



안 그의 가정에 작은 안정이 찾아오는 듯 했다. 그러던 1998년 6월 18일, 그날 그는 16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배속됐다. 이곳저곳을 옮겨가며 일을 하던 그때 순간 발을 헛디뎠다는 느낌이 났다. ‘앗차’ 하는 생각이 들 사이도 없이 이미 그의 몸은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추락재해 입어 허반신마비환자 돼

사고발생 3일 후, 봉평열씨는 혼미한 의식 사이로 파고드는 극심한 다리통증이 느껴졌다. 애써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다.

동료들의 말을 빌면 그가 살아난 것은 기적이었다. 당시 16층에서 떨어졌던 그는 9층에 설치되어 있던 낙하물 방지망에 걸렸다가 튕겨져 9층 내부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하늘이 도운 것이다. 천운에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자신의 상태를 보고 절망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추락과정에서 허리를 크게 다쳐 하루아침에 허반신 마비 환자가 됐다.

노력 거듭해가며 자신감 얻어

세 아들 중 막내 아들은 겨우 중학교 3학년이었다. 아버지의 역할이 꼭 필요한 때인데 이런 시기에 뒷바라지는 못해줄망정 짐이 됐다는 생각이 그를 휘감았다.

하지만 장애와 아픔을 이유로 멈춰있을 여유가 없었다. 장애우라도 익힐 수 있는 기술이라면 닥치는 대로 배웠다. 어떻게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재활병원에서 가르쳐 주는 인장기술 등 갖가지 기술을 습득해 나갔다. 50이 넘는 나이에 배움의 속도가 느리긴 했지만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이런 노력의 과정 속에서 비록 장애우지만 손기술만 있다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봉평열씨는 인천산재병원에서 귀금속공예를 4년여에 걸쳐 배우고 있다. 공방에서도 알아주는 실력이지만 그는 단지 통증을 잊기 위해 배운 얇은 실력이라며 겸손히 말한다.

그의 작은 소망은 언젠가 여유가 생긴다면 자신만의 귀금속공예공방을 여는 것이다. 어려운 형편에 쉽사리 이루어지진 못하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며 그때를 준비하고 있다. ☺